

나주시 '영산강변 생활권 활성화 사업' 본격화

2026년까지 354억 투입...농촌 정주여건 개선·SOC 확충 농촌 리더 양성·인재 발굴 등 주민 참여 역량 강화 사업도

나주시가 354억원 규모의 '영산강변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농촌지역 생활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농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국가 균형발전 활성화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공동 목표인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을 도모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가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공모한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당시 나주시는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영산강변', '원도심', '혁신도시' 등 3개 생활권으로 구분해 수립했다.

이 중 영산강변생활권(공산·왕곡·반남·동강·세

지)를 우선 생활권으로 선정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영산강변 생활권 활성화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5년 간 354억원(국비230억·시비124억)을 투입해 농촌정주여건 개선과 365생활권 조성을 위한 SOC확충을 추진한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육성', '마을 만들기(마을회관 리모델링)', '농촌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100원택시)' 도입 등이 주요 목표다.

여기에 취약마을을 정주여건 개선, 빈집·주택 정비, 농촌 리더 양성, 인재 발굴 등 주민참여 기반 역량 강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협약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yacson@kwangju.co.kr



윤병태(오른쪽) 나주시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농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국가 균형발전 활성화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주민 침수피해 막는다 함평군, 하수도 정비 나서

함평군이 함평읍 소재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에 착수한다. 함평군은 총 사업비 313억원을 투입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을 신규 착공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하수관 용량 부족으로 침수피해를 겪었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하수관 용량을 확장·정비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4년까지 함평리, 내교리, 기각리 등 함평읍 소재지인 일원에 하수관로 신설(1978m), 기존관로 개량(2154m), 배수펌프장(1개소)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학교면, 월야면, 대동면 3개 지역 소재지에 대해서도 환경부 주관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에 선정됐다. 사업비 44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가축 폭염피해 막는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대책 마련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생산성 저하 등 축산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은 지난 6월 27일부터 이른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지난해보다 더운 가운데 국지성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며 2-3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됐다.

농업기술센터는 폭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8월 12일까지 '중점 기술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피해 우려 지역 농가와 시범 및 실증농가를 방문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위에 약한 가축은 30℃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 고온 스트레스가 시작돼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발육 저하, 번식 장애, 면역력 약화 등으로 폐사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에 고온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축산분야 전기시설 점검, 축사 지붕 단열재 부착, 축사 내 환기 실시, 축사 지붕에 물 분무 장치 설치, 분뇨제거와 청결 상태 유지 등 폭염시 가축관리 요령을 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다.

최영아 연구개발과장은 "축산농가에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가축 사양관리 및 위생관리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현장 농가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 귀농작가 "지역 소식 알려요"

마을 소개·관광지 등 취재...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게재

화순군 귀농귀촌 동네작가들이 화순군 행사, 지역 정보 등을 소개하는 활동(사진)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귀농귀촌지원센터는 동네작가 6명을 선발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동네작가들은 마을소개, 공동체 활동, 귀농귀촌 성공사례, 지역문화 또는 관광지, 주민 행사를 취재해 현재까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 110개의 게시물을 제작, 게시해 화순군과 농촌지역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정장년층이 익숙한 블로그 형태로 제작해 접근성을 높였고, 화순 8경에 속한 세량지 소개

에 대한 블로그 게시글은 조회 수가 1300회를 넘는 등 화순군 관광과 지역 정보에 대한 도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화순군의 세세한 정보를 직접 체험하고 느낀 그대로 작성해 블로그에 홍보함으로써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농촌지역과 귀농귀촌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동네작가를 운영해 화순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도시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발판삼아 우리 군 귀농귀촌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 용두농협 '농업인행복버스' 운행

의료 지원·장수사진 촬영

장흥군 용두농협(조합장 백찬인)은 지난 15일 지역 농업인, 소외계층 등 조합원 6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업인행복버스' <사진>와 '이동상담실'을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행복버스'는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에 찾아가 의료지원, 장수사진 촬영, 검안·돌보기 지원 등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 고품질 농업인의 건강진단과 복지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이 영농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소비자·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농촌 현장으로 찾아가 교육하고 상담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의료진이 참여해 척추·관절질환 건강상담과 침, 뜸, 부항, 물리치료 등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액자사진을 증정했으며 개인별 검안 후 맞춤형 돌보기를 제공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이동상담실에서는 법률·소비자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 백찬인 조합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두농협은 지난 6월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농업인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